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7차 총회(임시) 개최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보증시장 경쟁에 대비할 터”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사업성과를 결산하는 뜻 깊은 이 자리에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할애하여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경기불황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을 이끌며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전국의 설비건설인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명식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대비 보증사고율은 1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항상 있어왔고, 위기가 도전이라면 우리 설비건설업계는 언제나 지혜를 모으고 나누는 등의 훌륭한 응전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조합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하여 조합원님들의 어려움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격동의 한해였습니다.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전세계의 경기침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었고 이어진 실물경기 위축은 그 끝이 어딘지 가늠하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모든 건설산업은 물론이고 특히, 우리 설비건설업계가 처한 어려움의 체감정도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 영향은 조합에도 미치어 조합원사의 보증실적 대비 보증사고율이 전년대비 3배 가까이나 되고 자본금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우리조합은 지난해에도 근로자 재해공제사업과 같은 신상품을 개발하고, IT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자조합 구현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조합 방문과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을 통한 약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자약정 서비스사업을 개시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을 계속해 왔으며, 조합의 보증책임 발생과 관련한 사전·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대책반을 설치·운영하는 등 정말 바쁜 한해를 보냈습니다.

기축년 올 한해도 조합의 십년지계를 마련토록 해서 더욱 고민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그 준비의 하나로서 우선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 및 세부실천계획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립된 경영계획과 전략은 중단 없는 실천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다가올 보증시장 경쟁에 대비한 기초체력을 다지고 미래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목표는 “고객에 대한 책임경영 실현”입니다.

그 세부실천 목표인 서비스 생산체계 최적화, 서비스 지원체계의 혁신, 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성화, 조합 자산 건전성 확보 등을 확실히 실현하여 조합원님의 가치를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오늘 총회에 상정하는 안건 중 2008년도 경영성과 보고 겸 결산서(안)은 잠시 후에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 영업수익 121억원, 영업외 수익 169억원, 합계는 290억원 입니다.

비용은 : 영업비용 263억원, 영업외비용 3억원으로 합계 266억원 입니다.

따라서 경상이익은 24억원이고, 법인세는 우리조합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작년에 개정되어 대우변제 준비금을 비용에 산입한 결과 기납부한 법인세 23억 전액을 환급받을 예정이므로 2008년 결

산시 납부할 법인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 당기순이익은 24억원 입니다.

24억원은 조합원사의 지분액에 반영하여 한 좌당 4천 6백 14원을 인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2008년도 결산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안)”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의 검토 및 세무조정과 조합 감사의 감사를 거쳤으며,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조합원과 조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합을 후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조합 모든 임·직원은 조합원사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꾸준한 조직혁신과 조합원 지원서비스 개발 및 향상을 위해 조합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내빈과 대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는 작년보다 더 어려운 경기여건이 되겠지만 모든 조합원사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간다면 능히 헤쳐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대의원님 여러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2. 20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이 영 식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7차 총회(임시) 축사

“조합의 생존력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재도약 기회 창출”

오늘 우리 조합 총회를 축하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국토해양부 김영학 과장님과 홍평우 명예회장님, 정승일 명예회장님, 박종학 명예회장님,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의원 여러분!

지난 2008년에는 자재가격 폭등과 실물경기 위축으로 조합원사의 부도가 늘어나면서 조합의 보증손실률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새해 초부터 대주단 협약에 따른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조합원사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300대 건설사로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조합의 보증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지난 해 조합이 ‘리스크 관리대책반’을 가동하여 조합의 보증손실을 최소화 시킨 것처럼, 앞으로도 조합은 건설업체 구조조정이 조합과 조합원사에게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

건설산업은 지금 건설산업 선진화 과정에서, 종합과



▲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전문, 그리고 국내·외의 모든 보호장벽을 허물고 무한경쟁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조합도 보증시장 개방을 앞두고 더 이상 무풍지대가 아니며, 특히 규모 및 연륜 면에서 타 조합에 비해 크게 못미치고 있는 우리 조합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며 대내외적인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조합 임직원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시스템 정비와 서비스 상품의 다각화, 틈새 시장 발굴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조합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조합의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우리업체는 지금의 어려움을 더욱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희망과 성장의 기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총회가 조합의 발전을 다지는 축하의 장인 총회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대의원 여러분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2009. 2. 20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강 석 대

제27차 총회(임시) 개최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월 20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7차 총회를 개최했다.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27차 총회(임시) 개최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영식)은 지난 2월 20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박종학·정승일·홍평우 명예회장, 전국대의원 및 김영학 국토부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7차 총회(임시)를 개최하고 2008년도 경영성과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08년도 경영성과 보고 겸 결산서(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 수익 : 290억원

-비용 : 266억원

-경상이익 : 24억원

-순이익 : 24억원

-2008년도 결산결과 당기 순이익 24억원을 조합원의 지분액에 반영하여 좌당 4,614원을 인상했다.

□ 이영식 이사장 개회사 -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 보증시장 경쟁에 대비할 터”

이날 이영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제



▲ 이영식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조합의 십년지계를 마련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다가올 보증시장 경쟁에 대비할 것”을 밝혔다.

위축은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하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며 특히 설비건설업계가 처한 어려움의 체감 정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위기는 항상 존재 했고 설비건설업계는 위기시 언제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나누는 등 훌륭한 응전을 통해 잘 극복해 왔으며 조합은 모든 역량을 다해 어려움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조합은 지난해에도 근로자 재해공제사업 등 신상품 개발과 IT서비스 품질 향상, 전자조합 구현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 서비스사업 개시 등 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위한 혁신을 계속해 왔으며, 조합의 보증책임 발생과 관련한 사전·사후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 대책반을 설치·운영하는 등 정말 바쁜 한해를 보냈다”고 말한 다음 “기축년 한 해는 조합의 십년지계를 마련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 중단 없는 실천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향후 다가올 보증시장 경쟁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석대 회장은 축사를 통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조합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 것”을 당부했다.

□ 강석대 회장 축사 -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재도약의 기회 창출”

강석대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새해 초부터 대주단 협약에 따른 건설업체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조합원사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300대 건설사로 구조조정이 확대될 경우 조합의 보증 손실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히며 “지난해 조합이 리스크 관리대책반을 가동해 조합의 보증손실을 최소화 시킨 것처럼 앞으로도 조합은 건설업체 구조조정이 조합과 조합원사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대 회장은 또 “조합은 보증시장 개방을 앞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통해 대내외적인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며 “조합은 현실적인 시스템 정비와 서비스 상품의 다각화, 틈새시장 발굴 등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조합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